



# Overlay removable partial denture 이용한 상악의 수복 증례

임진원\*, 조현정, 신상완, 류재준, 서규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치과보철과

본 증례는 75세의 남자 환자로 보철적 수복을 위해 내원하였다. 상악 우측 구치부가 상실되어 있었고, 대합치의 정출로 인해 보철적 수복을 위한 약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교합면의 마모로 인해 교합 고경이 감소하였고, 상악 전치부의 심한 마모와 구개측 경사로 심미적이지 않은 상태였다. 상악 우측 고정성 보철물은 심한 동요도로 인해 발치를 요하는 상황이었기에 발치 후 편측 무치악의 상태가 되었다.

교합고경을 동반한 보철적 수복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환자에게 제안하였다.

1. Conventional removable partial denture + Fixed partial denture
2. Implant-supported fixed partial denture + Fixed partial denture
3. Overlay removable partial denture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overlay removable partial denture를 선택하였다.

Overlay removable partial denture(ORPDs)는 자연치, 치근, 임플란트를 피개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철물이다. ORPDs는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을 때 원래의 비심미적인 상태가 노출되고, 의치와 치아가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여 우식과 치주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잔존 치열의 손상은 최소로 하면서 수직 고경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비용 대 효과면에서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례 선택 시 우수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환자는 치아의 전반적인 마모로 인해 교합 고경이 상실되었고 상악 전치부가 구개측 경사를 보였기 때문에 전치부 순면까지 피개되는 ORPDs로 수복하여 기능적, 심미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대 효과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장기적인 예후도 좋으리라 예상된다.